

새해 밝았지만... KIA 과제 산더미

‘외국인 투수’ 구성 안됐고 김선빈 FA 계약도 해 넘겨 ‘팀 성적’ 우선 연봉협상 ‘찬바람’ 예고... 선수들 불만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호랑이 군단’의 결음은 더디다.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키워드는 ‘명예회복’이다. 김중국 감독과의 약속된 마지막 해, 지난 2년 KIA의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KIA는 2022시즌 5강 턱걸이를 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했지만 무기력한 플레이로 한 경기 만에 ‘가을 잔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는 2017 우승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화끈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과는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였다.

시즌 시작과 끝이 부상으로 얼룩졌고, 2년 연속 외국인 투수 농사에서 흥작을 기록했다. 김중국 감독도 기대했던 자신의 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KIA는 많은 숙제를 남기고 2023시즌을 끝냈다.

해가 달라졌지만 KIA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2024시즌 순위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로 꼽히는 ‘외국인 투수’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KIA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3년 연속 동행을 하기로 했지만, 산체스와는 일찍 작별을 고했고 KIA가 저울질했던 파노니는 먼저 새 팀을 찾았다.

두 자리를 새로 꾸려야 하지만 아직 KIA의 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구단은 ‘들다리도 두드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리스트에 두고 관찰했던 선수들 중 매디컬 테스트까지 모두 거친 뒤 계약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빈의 FA 계약도 해를 넘겼다.

KIA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포수 김태균을 다년 계약을 통해 잔류시켰다. KIA 입장에서는 ‘안방마님’ 자리에 급한 불은 켜지만 김선빈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김태균의 계약을 놓고 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타격에서는 여전히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자원이지만 수비·주루에 대한 고민이 남으면서 KIA와 김선빈은 금액·기간을 놓고 이점을 보여왔다. KIA는 김선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선빈에 우선 조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형우의 계약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나이를 잊은 활약을 선보였던 ‘최고참’. 고향팀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어하는 최형우와 세대교체를 위한 버팀목이 필요한 KIA, 시선은 같은 곳에 있지만 세밀한 조율은 남아있다.

연봉협상이라는 큰 산도 KIA가 넘어야 한다.

KIA는 연봉고과에서 ‘팀 성적’을 우선 꼽는다. 팀 성적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연봉 총액이 달라진다. 2022년 5위에 자리했던 KIA는 지난해 6위로 한 계단 추락했다. 그만큼 연봉 테이블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성적이 추락할 때면 ‘팀퍼스트’를 이야기하는 구단과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 입장 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년 연속 외국인 투수 영입 실패, 세밀한 운영 부족 등 구단도 성적 하락에 큰 지분이 있지만, 그 여파가 연봉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수들의 불만 소리가 나온다.

들쭉날쭉한 성적이 이어지면서 FA와 비FA 선수들의 격차가 커지는 점도 KIA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한편 2023시즌 FA가 아닌 선수 중 연봉고과 1위는 투타에서 임기영과 박찬호가 장식했다. 선발 경쟁에서 밀렸지만 불펜에서 ‘마당쇠’ 역할을 했던 임기영, 부상후흔을 하면서 KIA의 신바람 야구를 이끌었던 박찬호. 두 선수의 연봉도 이번 스토브리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공격수 정지용 영입

새 시즌을 준비하는 광주FC가 2일 안산그리너스FC에서 공격수 정지용(25·사진)을 영입했다.

키 179cm 체중 69kg의 체격을 갖춘 정지용은 오른발을 사용하며 빠른 스피드와 일대일 돌파 능력이 돋보인다. 그는 또 박스안 공간 활용과 득점 기회 창출 능력도 겸비하면서 광주 결정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수원공고, 동국대 출신인 정지용은 2018년 U리그 서울·인천·제주·경기 4권역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는 등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높은 골 결정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2019년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22년 화성FC(K3)에서 24경기 7골 1도움을 기록, K3리그 베스트 임레벨에 선정됐다. 2023년 안산으로 이적한 정지용은 프로 통산 44경기에 나와 1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정지용은 “2년 만에 다시 높은 곳에서 경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그 팀이 광주여서 더욱 기대된다”며 “K리그2, K3리그에서 뛰며 절실함을 느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 팬들에게 나라는 선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증명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는 3일 태극 치암마이로 출격해 2024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

29년만에 홍콩에 진 중국...아시안컵 ‘빨간불’

친선경기 3명 퇴장 당하며 1-2 패 39년 만의 승전보다.

홍콩을 이끄는 예르 안데르센 감독은 SCMP에 “선수들이 (다른 경기보다) 더 잘했다”며 “중국과 맞붙을 때면 내가 (따로) 동기부여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대표팀에서는 퇴장당한 인원만 3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폰푸이힌이 동점 골을 넣은 이후 심판에 무례한 행동을 한 미드필더 왕상위안과 위험한 동작으로 지적당한 수비수 우사오충이 차례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중국 티탄저우바오(영문명 타이탄 스포츠)에 따르면 왕상위안이 후반 11분 퇴장당했고, 7분 후 벤치에서도 코칭스태프 한 명이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후 후반 27분 우사오충까지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이후 중국은 9명 대 11명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경기 3연패를 당했다.

중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79위다. 홍콩은 150위다.

/연합뉴스



김민재(왼쪽)가 2일 열린 '2023 KFA어워즈'에서 처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공을 차던 모습. /연합뉴스

‘올해의 선수’ 김민재, 손흥민 제쳤다

대한축구협회 선정... 여자부는 국가대표 천가람 수상

‘철기둥’ 김민재(왼쪽)가 ‘캡틴’ 손흥민을 제치고 처음으로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2023 KFA어워즈’를 열고 올해의 선수 남자부 수상자로 김민재를 호명했다.

‘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협회가 지난 2010년부터 전문가와 축구 기자단에 의뢰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협회 출입 언론사의 축구팀장과 협회 기술발전위원,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등 50명이 진행한 투표에서, 김민재는 총 137점을 얻어 113점을 받은 손흥민을 따돌리고 처음 ‘올해의 선수’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손흥민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 주역으로 자리한 김민재는 지난 7

월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하며 독일 분데스리가로 무대를 옮겼다.

독일 최고의 팀 뮌헨에서도 철벽수비를 과시하고 있는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A매치 8경기에서는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2023년을 보냈다.

김민재의 첫 수상이자 수비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2015년 김영권(현 울산HD) 이후 8년 만이다.

역대 최다 수상자는 7개의 트로피를 차지한 손흥민으로 지난 4년간 연달아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세 동지를 둔 이강인은 84점을 얻어 3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영건’ 천가람(화천 KSP0)이 ‘올해의 선수’가 됐다.

천가람은 WK리그 감독들과 여자대표팀 코칭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여자 전임지도자 등이 참여한 투표에서 20점을 획득하면서 ‘여자 축구 지존’ 지소연(수원FC)을 1점 차로 꺾고 트로피를

차지했다. 지난해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었던 천가람은 1년 만에 ‘올해의 선수’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측면 미드필더로 주로 활약하는 천가람은 올해 여자월드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A매치 12경기에 나와 4골을 장식했다. 여자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주목받은 그는 소속팀 화천KSP0가 팀 역대 최고 성적인 정규리그 2위에 오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3 영플레이어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인 황재원(대구FC)과 여자월드컵 역대 최연소 선수인 케이시 유진 페이가 선정됐다.

포항스틸러스의 FA컵 우승과 K리그 준우승을 지휘했던 김기동(FC서울) 감독과 WK리그 11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인천현대제철 김은속 감독은 ‘올해의 지도자’가 됐다.

올해의 심판상은 고희진·박상준(이상 남자 주·부심), 오현정·김경민(이상 여자 주·부심) 심판에게 돌아갔다.

또 협회는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나이기,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故 박종환 감독에게 특별공헌상을 수여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하성 가치 1억 달러 트레이드 신중해야”

美 스포츠 매체 가치 평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하는 김하성(28·사진)의 현재 가치가 1억 달러(약 1296억원)를 넘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에슬레틱은 2일 샌디에이고 개막전 로스터를 예상하는 기사에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불거진 김하성 트레이드설을 짚었다.

올해로 샌디에이고와 체결한 4년 계약이 끝나는 김하성의 몸값은 지금이 최고점이다.

타석에서는 MLB 평균 이상의 생산력을 지닌 선수라는 걸 입증했고, 미국에 건너갈 때부터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뒤따른 수비는 지난해 골드

글러브 수상으로 화룡점정 했다.

“공격 능력과 리그 최정상급 수비,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20대 내야수”는 어느 팀에서나 탐낼만한 자원이다.

문제는 샌디에이고에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샌디에이고는 지난해 지역 중계방송사가 파산한 여파로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다.

매체는 “김하성을 트레이드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올해로 샌디에이고와 계약이 끝나는 김하성을 붙잡으려면 1억 달러가 넘는 액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성과 포지션이 겹치는 내야수 제이크 크로넬 역시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된다.

매체는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김하성은 계약

마지막 해인 이번 시즌 큰 활약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김하성과 크로넬 두 선수 모두 팀에 남는다면 샌디에이고의 로스터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트레이드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팀 내야에 또 다른 구멍이 있어서다.

지난 시즌 막판 팔꿈치 수술을 받은 주전 3루수 매니 마차도가 시즌 초반 수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안 소토를 뉴욕 양키스로 보낸 샌디에이고는 외야 역시 고민이다.

매체는 “샌디에이고에 필요했던 이정후를 잡지 못한 게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연합뉴스